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인천소식

이현구 | 인천일보 기자

인천예술인 해외 공연 잇따라

인천의 예술인들의 해외 공연이 이어졌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전통예술인들이 러시아에서 우리 고유의 민속예술을 선보였다. 러시아 외무성과 카렐라극장장 초청으로 이뤄진 이 공연은 지난 5월 27일 오후 7시(현지 시각)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카렐라극장극장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이날 출연한 인천 지역 예술인들은 범패와 작법무 보유자 능화스님과 일초 스님, 피리 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이거희 씨, 가야금 산조 이수자 홍은주 씨, 전국민요경향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이자 선소리 산타령보존회 북부지방 지부장인 차석환 씨, 대금정악 이수자 진철호 씨, 발림무용단 대표이자 살풀이춤 이수자인 김묘선 씨, 인천풍물연구보존회 회장 노종선 씨 등이다.

『인천월미음악대축제』 열려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을 축하하는 『제2회 인천월미음악대축제』 개막연주회 〈인천시립교향악단과 인천연합합창단 연주회〉가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 30분 인천중합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하늘로·바다로·육지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연은 인천시립교향악단 금노상(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씨의 지휘로 로시니의 서곡 〈윌리엄 텔〉,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 바이젠 작품 20〉(바이올린 이성주), 요한 스트라우스의 〈황제 왈츠〉, 차이코프스키의 〈서곡〉 등이 연주돼 갈채를 받았다.

인천시립합창단, 남동구여성합창단, 연수구여성합창단, 제2교회코람데오남성합창단, 가톨릭남성합창단, 동구여성합창단 등 인천 지역 13개 합창단으로 구성된 인천연합 합창단 500여 명은 〈경복궁 타령〉 〈신고산 타령〉 〈농부가〉 등 팔도민요를 불러 눈길을 끌었다.

경인소식

류주선 | 경인일보 기자

월드컵 수원경기 문화행사 풍성

2002 한·일 월드컵 수원경기 공식 개막행사가 6월 1일 2만여 관람객이 운집한 가운데 수원 화성 연무대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유

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성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특설 무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식전행사로 안성남사당, 줄타기 인간문화재 김대균, 인기가수 장사의, 소찬휘, 김경호 씨가 출연했고, '물·불·성'을 주제로 3개 퍼레이드가 시 일원을 행진한 뒤 연무대로 들어오면서 공식행사가 시작됐다.

공식행사는 성 퍼레이드의 중심인 정조대왕이 도착해 수원유수에게 축하교지를 하사했고 교지가 낭송된 뒤 삼두화가 치솟으면서 청룡이 현신하는 모습을 조명과 불꽃으로 연출했다.

이어 열림굿과 김대환의 타악연주, 도림팍스·연합합창단의 웅장한 〈코리아 판타지〉, 안은미무용단, 어어부밴드가 푸른 잔디밭을 수놓았으며 프랑스 우르반 색스의 예술성 넘치는 색소폰 퍼포먼스가 초여름밤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피날레는 성곽과 어우러진 화려한 불꽃놀이로 장식해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줬다.

경기도립국악당 기공

경기도는 6월 8일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한국민속촌 인근 부지에서 경기도립국악당 기공식을 가졌다. 183억원을 들여 오는 2004년까지 완공 예정인 도립국악당은 부지 1만 76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48평 규모로 576석의 공연장과 전시실, 연습실을 갖추게 된다. 경기도가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주요 문화시설은 백남준미술관(용인), 경기도립미술관(안산), 효박물관(화성), 실학박물관(광주) 등이 있다.

강원소식

남궁현 | 강원일보 기자

신봉승 씨, 전시회 이어 소장장서 강릉시 기탁

강릉예총 창립 40주년맞이 기념행사로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초당 신봉승 선생의 〈초록익크와 100권의 저서전〉이 강릉문화예술관 소전시실에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전 48권을 비롯 대하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대본, 「시나리오 작법과 극영화시나리오」 「TV드라마 선집」 등 방송 관련 책자와 100번째 저서 역사에세이 「학생부군과 백수건달」 「역사에세이」, 시집, 회곡 「파옹」 등 101권의 저서와 중요 소장도서가 전시됐다. 초당 신봉승(70) 씨는 전시회를 마치고 자신의 저서와 소장하고 있는 장서 2,000여 권을 강릉시에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위를 놀라게 했다.

다양한 전시 붐들

〈한·중 국제교류전〉이 6월 1일부터 8일까지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2002 한·일 월드컵 기념전시회로 열렸다.

월드컵 기간에 한국을 찾을 외국인들에게 우리 미술을 소개하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아트피아 주최로 영월군, 중화민국문화권설위원회, 외교부 등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아트피아는 중앙화단에서 발돋움하고 있는 비중 있는 미술단체로 매년 정기발표전을 개최하며 전국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단체로 이번 전시회는 영월, 원주, 태백, 제천 등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대만 윤립현 작가 등을 초대해 국제적인 면모의 양국간 고유한 미감과 감각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소, 공예 등 각 장르마다 지닌 독특한 형상성을 창출시켜 주옥같은 작품들을 선보인 이번 전시회는 선학군 아트피아 회장(관동대 교수)을 비롯한 도내 작가 등 양국의 작가 120여 명이 참여했다. 〈국제현대미술관전시〉와 같이 열렸으며 전시기간 동안 '문명+인간'을 주제로 류환 작가의 퍼포먼스 행사도 이어졌다.

제5회 대한민국 환경사진전 〈함께 일구는 땅〉이 지난 6월 3일부터 6일까지 동해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마련됐다.

대전소식

엄은화 | 중도일보 기자

문화월드컵 열기 고조 - 국제 행사로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

2002 한·일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문화월드컵이 6월 한 달간 대전 일대에서 성대히 펼쳐졌다.

특히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때에 맞춰 각종 국제 규모의 행사가 열려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다.

2002 한·일 월드컵을 기념해 시립미술관에서 〈대전·뉴욕 스페셜 이벤트전〉을 비롯해 〈국제판화전〉 『2002 세계 인형극 페스티벌』 〈2002 국제 지능로봇 전시회〉 〈대전 월드컵구장 경기 참가국 민속 공연〉 등이 선보였다.

〈대전·뉴욕 스페셜 이벤트전〉은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 중인 세계적인 수준의 설치미술작가들이 첨단 과학과 미디어로 표현한 미술 작품으로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첨단 테크놀러지를 이용해 단순히 감상하는 데서 나아가 듣고,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전으로 준비한 것. 6월 6일부터 23일까지 엑스포과학공원 이미지네이션관에서는 『2002 세계 인형극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러시아를 비롯해 예술성과 대중성이 뛰어난 6개국의 조종인형극팀을 초청해 외국인과 관광객들에게 세계 각국의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며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또 13일부터 16일까지 엑스포과학공원 특별전시관에서는 〈2002 국제 지능로봇 전시회〉가 열렸다.

동산도기박물관 - 〈옛 돌조각 특별전〉

선인들은 돌을 어떻게 활용했을까?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하면서부터 주위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사용해 온 여러 가지 도구들 가운데 가장 튼튼하고 부식되지 않으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던 돌.

돌의 쓰임새를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지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대전시청 제1전시실에서 〈새로운 발견 - 우리 옛 돌조각전〉이라는 타이틀로 선보였다. 전시장에는 박물관이 그 동안 수집해 온 선사유물, 생활용구, 농묘 조각 등의 전통 돌조각이 전시됐다. 마제석부, 마제석검, 반월형 석도, 마제석촉과 같은 선사 유물을 비롯해 맷돌, 돌방, 돌방에 다듬잇돌, 문인석, 동자석, 벽수 등과 같은 농묘조각 등 3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청소식

이현숙 | 충청일보 기자

서음 피아노연구회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회

서음 피아노연구회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가 5월 29일 저녁 7시 30분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로시니의 〈빌헬름 텔 서곡〉, 웨버의 〈무도회의 권유〉,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 작품 23〉, 스메타나의 〈론도〉를 들려줬다. 또 드보르작의 〈슬라브 댄스〉, 카차투리안의 〈사브레 댄스〉를 비롯해 윤용하 곡 〈보리밭〉, 김영채 곡 〈모듬북과 피아노 여덟 손을 위한 아라리오 변주곡〉을 연주했다.

이번 연주회는 창단 10주년을 맞아 피아노와 국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꾸민 것이 특징적이었다. 대중적이며 실용적인 곡을 선정, 피아노 음악의 기품 있는 음악세계와 아름다운 선율을 접할 수 있었다.

청주시립무용단 방문공연

청주시립무용단이 방문공연에 나섰다. 5월 15일 오전 11시 충북 예술고 강당, 18일 저녁 7시 공군사관학교 성무관, 21일 오후 1시 충북도 노인회관 야외무대에서 각각 펼쳤다.

이번 방문공연은 전통춤 발굴로 춤의 대중화를 꾀하고 해설을 곁들여 전통춤의 중요성과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취지. 공연작품으로 〈연화무〉 〈선비춤〉 〈검부〉 〈사랑가〉 〈진도북〉 〈태평무〉 〈북의 춤〉 등을 선보였다. 〈연화무〉는 궁중무용에 바탕을 둔 춤으로 연꽃에 마음을 달아 태평성대를 기원, 〈선비춤〉은 조선시대 양반사대부들의

풍류를 춤으로 표현하여 남성적 기품이 살아 있는 흥과 멋을 풍긴다. 〈검무〉는 중국 호나라에서 유래, 빠르고 다양한 동작의 춤사위를 보여준다. 〈사랑가〉는 판소리 춘향전의 사랑가 한 대목에 맞춰 추는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춤이다.

〈꽃마차는 달려간다〉

청주시 연극협회 연합공연작 〈꽃마차는 달려간다〉(김태수 작)가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문화공간 너름새에서 공연됐다. 이 작품은 보통사람들의 삶을 코믹하고 감동 있게 그린 연극으로 관을 짜는 직업을 가진 순보를 통해 인간에 얹힌 삶을 풀어간다. 한때의 방황이 인생에 남기는 커다란 과오가 어떤 것인가, 30년간 지내온 죽은 아내에 대한 제사의 의미 등 우리 사회 인생의 거친 삶과 이들의 애환을 조명하고 있다.

대구·경북소식

최 미 화 | 매일신문 기자

오페라 무대를 한 단계 상승시킨 〈투란도트〉

지난 6월 7~9일 사흘 동안 대구야외음악당에서 열린 대구시립 오페라단의 〈투란도트〉는 축제라는 측면에서의 확실한 성공과 함께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월드컵 기간임에도 사흘 동안 6만여 명 이상의 관객이 몰려들어 대구 시민들의 오페라 열기를 반영했다. 축제로 꾸민 만큼 불거리듯 흥분했다. 보는 이를 압도하는 황금빛 대형 무대(26m, 아파트 8층 높이)는 대구 오페라사에 남을 정도의 웅장함을 자랑했고, 주역들의 탄탄한 실력과 등장인물들의 화려한 복장, 중국 경극단의 묘기, 예기치 못한 불꽃놀이,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은 단순 축제마당을 '예술적인 축제마당'으로 끌어올렸다.

2002 한·일 월드컵 기념 신창극 〈현해탄에 핀 매화〉

지난 6월 10일과 1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린 전통 뮤지컬 〈현해탄에 핀 매화〉는 화려한 국악가락과 춤사위가 어우러진 장쾌한 무대였다.

50, 60대 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관객까지 이들 동안 1,300여 명이 찾아 감동에 젖었다. 이 신창극은 임진왜란 당시 전쟁포로로 끌려간 조선의 유학자가 일본 영주의 스승이 되고, 그의 가르침에 일본인들이 큰 감화를 받는다는 줄거리로 한·일 두 민족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다. 무대효과와 음향에서 서양 오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다. 진주성 전투장면에서는 실제 공포탄이 화약연기와 함께 불을 뿜었고, 합성이 무대를 뒤덮었다.

장석수 화백 고택 보존운동

한국 추상화의 1세대 작가로 활동했던 장석수(1921~1976, 전 영남대 교수) 화백이 1947년부터 타계할 때까지 살던 삼덕동 집(1942년 건립)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대구 미술계에서 일고 있다. 널찍한 마루에는 장 화백의 작품이 여럿 걸려 있고, 그 한쪽에는 장 화백이 쓰던 물건들이 가득 놓여 있다. 추앙받는 한 화가가 열정을 불태워온 아틀리에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 셈이다. 나지막한 천장의 자그마한 일본식 방에는 장 화백의 유작 80여 점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그림을 그릴 때 쓰던 물감, 나이프, 붓은 물론 심지어 그가 즐겨 피우던 파이프, 외출할 때 쓰던 베레모 등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가 50년 전 지팡이를 짚아 만들었다는 먼지 덮인 장기알도 세월의 흔적을 보여준다.

경남소식

김 규 학 | 경남일보 기자

남강 둔치서 열린 『영호남연극제』

지구촌 축제인 2002 한·일 월드컵을 축하하고 국민화합과 동서화합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제3회 영호남연극제(남도연극제)』가 진주, 순천, 경주, 전주 등 8개 극단이 참가한 가운데 진주에 소재한 경남도문화예술회관과 남강 둔치 일원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11일 까지 닷새간 화려하게 펼쳐졌다.

개막 첫날인 7일은 오후 6시 30분 진주시내 일원에서 도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까지 길놀이로 식전행사와 개막식을 가졌다. 식후행사로 남강변 야외공연장에서 서울극단 맥의 〈뮤지컬 하이 라이트〉 공연을 시작으로 8일부터 도문화예술회관과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 본공연은 순천극단 겨울의 〈홍도야 울지 마라〉를 거쳐 11일 전주극단 명태의 〈바리·마리·우리〉로 막을 내렸다.

문신미술관 마산시에 기증

마산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고(故) 문신 씨 예술의 결정체인 문신미술관이 마산시에 기증된다. 문신미술관 최성숙 관장이 고(故) 문신 선생 7주기를 맞아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고향인 마산시에 미술관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마산시가 범 절차를 밟아 인수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본격적인 기증 과정을 밟고 있다.

조각가 문신 선생은 지난 1923년 마산에서 태어나 일본 도쿄(東京)미술학교에서 미술공부를 한 뒤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활동하다 1967년 프랑스 파리에 정착, 수십 차례에 걸쳐 회화·조각 분야 개인전과 전시회를 가져 현지 예술가들로부터 '균제미, 즉 시메트리(symmetry)의 대가'라는 격찬을 받았으며 지난 1981년 귀국,

고향 마산에서 활동해 오다 1995년 5월 타계했다.

〈원로작가 4인 초대전〉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1세대로 꼽히는 원로작가 송혜수(부산), 전혁림(통영), 정점식(대구), 추연근(부산) 화백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창원에 마련됐다.

창원 송하갤러리는 이전 개관기념 첫 기획전시로 한국 근·현대미술사와 함께 한국화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각 지역 원로작가 4인 초대전을 지난 6월 4일부터 23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 제5전시실(9일까지)과 성산아트홀 3층 송하갤러리 전시장(23일까지)에서 가졌다. 송혜수 씨의 소와 여인을 주제로 한 작품과 전혁림 씨의 전통오방색과 색동의 형태를 추상으로 조형화시킨 작품 등 4명의 작품 40여 점이 선보여, 젊은 작가들 못지 않은 활화산 같은 작품 열정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소식

강 동 수 | 국제신문 기자

〈부산 중진화가전〉

부산 화단에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50, 60대 작가들의 작품전이 모처럼 마련돼 완숙한 조형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부산 원화랑이 개관기념 행사로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마련하고 있는 〈50대 작가전〉은 이들이 그 동안 추구해 왔던 작품세계를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는 드문 자리. 참여작가는 김기남, 김민환, 김충진, 이강운, 장행자, 조규철, 조은영, 차경복, 최해성 씨 등 9명. 이들 가운데 김민환, 이강운, 조은영, 김기남 씨 등은 60대로 접어들 지역화단의 중진들. 대체로 구상계열이면서도 개성이 독특하다.

중견 춤꾼들 잇단 개인공연

부산의 중견 춤꾼들이 개인공연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월 12일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을 가진 현대무용가 염창홍 씨는 부산에선 흔치 않은 현대무용의 남성안무가다. 댄스프로젝트 〈꽃〉(안무 염창홍)을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 올린 염씨는 동아대에 겸임교수로 나가고 있으며 현대무용가 장정운(동아대) 교수와 많은 작업을 함께 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꽃〉은 갓 피어난 꽃을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의 이미지로 쓰면서 삶과 세상과 욕망이라는 원초적인 주제를 표현해 내 눈길을 끌었다.

『수영전통민속예술제』 성료

『제31회 수영전통민속예술제』가 6월 15일 오후 2시 수영 사적공

원 내 수영민속예술전수관 놀이마당에서 열렸다.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수영야류보존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통민속예술제에는 남부지방의 독특한 향토색을 담은 〈수영야류〉 〈구례우도농악〉 〈남해안 별신굿〉 〈예천 통명농요〉 〈설장구놀이〉 〈수영농청놀이〉 〈한마당놀이〉가 차례로 공연돼 눈길을 끌었다. 크게 전편(길놀이 군무)과 후편(4과장 탈놀이: 양반, 영노, 할미·영감, 사자무)으로 구성된 〈수영야류〉(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는 예능보유자인 윤수만, 김달봉, 태덕수, 문장수, 조홍복 씨를 비롯해 60여 명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다. 또 구례농악보존회(회장 이을재)가 펼치는 〈구례 우도농악〉은 지리산 남악제 행사에서 제례를 올리기 전 행사 시작을 알리는 판굿이며 〈남해안 별신굿〉(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은 어촌의 공동 제의를 연회화한 것.

전남소식

임 미 희 | 전남일보 기자

광주오페라단 창단 20주년 기념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광주 지역 오페라계를 견인하고 있는 광주오페라단(단장 손창위)이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아 이를 자축하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광주 무대에 올렸다.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지난 6월 15~18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막대한 예산과 인적 자원 등으로 오페라를 공연한다는 게 쉽지 않은 지방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매년 한 편씩의 오페라를 꾸준히 공연해 온 광주오페라단의 역량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다.

이 작품은 베르디의 대표적인 오페라인 〈축배의 노래〉 〈빛나고 행복했던 어느 날〉 〈아 그이었던가〉 〈지난달이어 안녕〉 등 주옥같은 아리아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기동 줄거리는 루이 14세 시절 파리를 배경으로 사교계를 주름잡던 열정의 화신 비올레타와 순수한 청년 알프레도 사이에 펼쳐지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다. 무대 세트와 각종 소품은 물론이고 무대 진행 스태프까지 국립오페라단에서 지원받아 공연의 내실을 다진 이번 작품에서는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현재 한양대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박수길 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김용운)이 연주를 담당했다.

〈천년의 비색〉, 광주무용제 대상 수상

김미숙한국무용단의 〈천년의 비색〉(안무 김미숙)이 오는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11회 전국무용제』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지난 6월 8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11회 광주무용제 및 전국무용제 예선대회』에서 김미숙한국무용단은 청자빛 재현이

라는 천년의 꿈을 좇는 한 도예가의 삶을 통해 고려시대 도공들의 애환과 좌절, 그리고 환희를 춤사위로 풀어낸 〈천년의 비색〉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한국적 소재를 한국의 전통 춤사위로 깊이와 절도 있게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 작품은 조선대 무용과 교수이자 단장인 김미숙이 안무를 맡았으며, 신철호·박누리·전이화·박은화·유원숙·김시원·박세진 등 30여 명의 무용수가 출연했다.

전북소식

임용록 | 전북일보 기자

축구에 얹힌 인류 대서사시-〈'매그넘' 축구사진전〉

연일 뜨거워지는 월드컵에 대한 관심 속에서 축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동의 순간을 음미할 수 있는 사진전이 열렸다. 신화를 창조하는 세계 최고 사진작가모임 〈'매그넘' 축구사진전〉이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전주한국소리문화의전당 1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매그넘'은 1947년 로버트 카파의 주도로 만들어진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들의 모임이다. 헨리 카르티에 브레송, 조지 로저, 데이브 칩 세이머 등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세계적 작가들이 창립 멤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은 62명(정회원 46명), 뉴욕과 파리, 런던, 도쿄에 지점을 두고 있다. 2002 한·일 월드컵을 기념해 런던의 매그넘이 축구에 관한 사진만을 엄선해 기획한 이 사진전에는 창립 멤버인 데이브 칩 세이머로부터 44명의 전설적인 사진작가들이 지난 50여 년에 걸쳐 기록한 작품이 관객들을 만났다. 축구가 단순히 스포츠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이들 사진들은 100여 점. 매그넘의 작가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각국에서 찍어낸 기록이다. 축구에 얹힌 인류의 대서사시라 할 만하다.

전국무용제 예선서 이경호무용단 전북 대표로 선정

지역 무용인들의 큰 축제인 『전북무용제』와 『전국무용제 예선대회』가 6월 15일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경호무용단, 오문자알타비아현대무용단, 김원무용단, O.K현대무용단, 발레라인즈가 참여한 이번 무용제에서는 〈떠오르는 그림, 다시 떠오르는 춤〉의 이경호무용단이 전북 대표로 선정됐다.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발레까지 다양한 장르의 창작춤을 선보인 이번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창작열기로 전북 춤문화의 활기를 그대로 전했으며 전통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창작춤의 위상을 새롭게 열었다. 수준도 지난해에 비해 높아졌으며 출전팀의 기량이 고르게 향상되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평.

이현배의 〈손내옹기전〉-옹기의 아름다움과 쓰임새

진안 손내마을에서 10년째 옹기를 굽고 있는 이현배 씨(40)의 옹기전이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렸다. 전통옹기의 맥을 잇고 그것을 우리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에 몰두해 온 이씨의 이 전시는 사단법인 마당(이사장 정웅기)이 초대전으로 기획한 자리. '기억 속의 풍경, 그 아늑함'을 주제로 알뜰배기, 알단지, 알방구리 등 옛 생활옹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개발한 옹기들이 넉넉하게 전시된 이 자리는 전통항아리부터 에스프레소 커피잔까지 전통과 현대생활을 아우른 쓰임새 중심의 다양한 옹기와 치열한 장인정신의 작품성이 돋보이는 옹기를 두루 선보여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제주소식

김순자 | 제민일보 기자

비양도의 아름다움을 선보인 〈비양도 사진전〉

옥색 물빛이 아름다운 '섬 속의 섬' 비양도.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앞바다에 떠 있는 비양도는 고려 목종 5년(1002)에 화산폭발로 생성됐다는 기록이 있어 비양도 주민들은 천년의 맥을 이어왔다. 1,000살을 맞은 비양도 주민들의 삶이 사진예술로 다시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

상명대 포토저널리즘연구소가 이 대학 예술·디자인대학원 사진학과 학생들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비양도를 들락거리며 찍은 사진을 모아 사진집 「천년의 섬 비양도」를 펴내는 한편 서울과 제주·비양도에서 사진전을 열어 비양도 주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상명대 포토저널리즘연구소는 지난 5월 비양도 주민들과 자매결연, 그 동안 쌓은 우의를 다지고 있고, 지난 6월 1~3일까지는 비양도 주민 40명을 초청해 청와대, 남대문, 경기도 서울종합촬영소 등 관광을 실시해 고마움을 사기도 했다. 이들 주민들은 또 서울 나들이 도중에 상명대 동송갤러리에서 열린 〈천년의 섬 비양도 사진전〉(6월 1~7일) 개막식에도 참가해 사진 속에 담긴 비양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확인했다. 비양도 주민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간다. 에메랄드 물빛이 고운 비양도 항공사진과 갈매기 떼가 그득한 섬 사진은 비양도의 아름다움을 웅변해 주고 있다. 그물을 손질하고,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손놀림, 물질하는 잠녀들 모습에선 비양도 사람들의 순박한 삶과 강한 생활력을 전해 준다.

학교 운동장에서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체조를 하는 아이들과 교실에서 공부하는 모습, 보건소의 진료 모습, 전투경찰들의 업무, 교회에서의 예배 모습과 비양도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곳 장면은 비양도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풍경이다.

문화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되어주길...

안녕하세요?

저는 매달 『문화예술』을 보면서 연기자의 꿈을 키워가는 연극영화과 학생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연히 도서관에서 처음 『문화예술』을 만났어요.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제게 『문화예술』의 글들은 다소 어려운 내용도 있긴 하지만, 강의 이외의 내용을 접할 수 있어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지요.

더구나 이번 호에는 제 고향 인천에 대한 소식도 있어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지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알지 못했던 인천의 이모저모를 속속들이 찾아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읽으면서 느끼던 건데요, 각 분야의 선생님들 글이 골고루 들어가서 공부하기에는 더없이 유용하지만, 가끔씩은 각 학교에서 치러지는 연극제, 무용제, 사진전 등의 작품 발표회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은 전문가 선생님들뿐 아니라 학생들도 많이 읽고 있다는 거 물론 잘 아시지요?

저와 같은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평가받고, 수정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 조금씩 더 자라날 수 있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이 문화예술인이 될 학생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 제 글을 관심 있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점점 더 젊어지는(?) 『문화예술』을 보면서 제 꿈도 조금씩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문화예술』 만드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주혜경 문화예술 독자

* 이 글은 우리 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독자의 글입니다.

‘文化藝術’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다 앞서가는 잡지, 질 높은 잡지, 알찬 잡지를 만들기 위해

『文化藝術』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부드러운 시선보다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적해 주시면

검허하게 “좋은 잡지”라는 결실로 보답하겠습니다.

『文化藝術』에 의견을 주실 분을 위해서

· 원고마감은 매월 15일입니다.

· 원고는 우편이나 FAX, E-Mail 또는 본원 홈페이지(게시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원고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또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소 : 우 100-766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편집실

◆ 전화 : 02-760-4568 ◆ FAX : 02-760-4694

◆ E-Mail : magazine@kcaf.or.kr ◆ 홈페이지(게시판) : www.kcaf.or.kr

원고가 문화예술지에 게재되는 분께는 매월(6개월간) 문화예술지를 보내드립니다.